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age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Langara collage는 station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방과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학교에 도착한 첫 번째 날은 학생들이 시험기간이이었지만, 후에는 방학이어서 현지학생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학교 내에 카페와 편의점과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화장실과 강의실이 깨끗합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반은 듣기 평가 후에 성적에 따라 여러 개의 반으로 나누어 졌으며, 저희 반은 한국인 학생 2명과 대만 학생 1명 일본학생 12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반은 한국인 학생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으며 어느 반은 일본인 학생만 있는 반도 있었습니다. 수업은 처음에 학교에서 나누어준 플랜에 따라 각 주에 해당하는 주제에 맞게 수업이 진행 되었고, 교재는 학교에서 주는 책으로 하였습니다. 숙제로는 일기, useful language, host family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일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매일 쓰는 거였기 때문에 귀찮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useful language는 퀴즈 형태로 하여 시험을 봤기 때문에 집에서 암기해 오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host family와는 간단한 인터뷰가 2번 있었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며, host family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쉽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이루어집니다. 저희 반은 3주 동안 3번의 발표가 있었고, 2번은 다른 반 친구들도 모두 함께하는 발표이었으며, 한 번은 Vancouver 박물관을 갔다 오고나서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3번의 발표다 어렵지 않으며, 수업시간에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거나 모르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질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카야킹- school버스를 타고 호수까지 50분정도 이동합니다. 한 Kayak에 두명씩 타며 뒤쪽에 앉은 사람이 발로 방향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는 이상 젖지 않음으로 여분의 옷보다 잘 마르는 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모자, 선크림, 선글라스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scover Vancouver-현지 대학생과 함께 조를 이루어 Vancouver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문제를 푸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할 때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편한 복장과 운동화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실 것을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쿠아리움- school 버스를 타고 수족관으로 가며 그냥 구경하면 됩니다. 휘슬러- school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가장 장시간 이동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곤돌라와 리프트를 타고 정상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까지 가면 조금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겹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산이 흙과 자갈로 되어있고 바람이 많이 불어기 때문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가면 더러워질 수 있으니 어두운 색 계열의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현지 계절은 여름이지만 우리나라의 초가을과 비슷한 날씨입니다. 캐나다는 햇빛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모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침과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강의실은 춥기 때문에 옷은 반팔위주로 챙기지만 겹옷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자주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겨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개스타운쪽에는 homeless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협을 하지 않으니 겁먹을 필요없고 그냥 관심을 안 가지면 됩니다. 또한 마약이 합법기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많이 맡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냄새에 정말 민감한 분들은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가로등 사이 간격이 넓어 거리가 많이 어두우며 일반 상점들은 8시쯤 되면 닫기 시작함으로 집에는 최대한 통금시간에 맞추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마다 다르겠지만 10시 이후에는 배차 간격이 점점 넓어져서 한 번 버스를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저를 포함하여 일본인 친구들 3명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각자 개인 방이 있었으며,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일본은 친구 2명은 방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화장실은 건식사용이며, 캐나다는 빗물을 물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샤워를 10분 안에 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용 후에 항상 욕조와 세면대를 주위의 물기를 닦아야 했습니다. 청소기는 거의 일주일에 1번 정도 밖에 안 돌리기 때문에 집안에서 신발을 벗는 집이라도 실내화와 자신의 방을 청소할 수 있는 돌돌이를 챙겨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늦은 시간에 씻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아침은 학교가전 각자 시간에 맞추어 내려오면 차려져있었고 저녁은 6시30분쯤에 먹기 때문에 먹지않을 시 그 전에 문자를 드려야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o)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아침은 주로 볶음 밥, 토스트, 과일, 빵과 같은 종류였고 점심으로는 항상 샌드위치를 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이나 컵 밥을 먹은 날도 있습니다. 저녁은 홈스테이에서 2번 밖에 먹지 않았고 거의 사먹었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방과 후에 항상 놀러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먹게 될 것입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홈스테이하는 곳과 학교까지는 30분정도 걸렸으며 환승을 1번 해야 했습니다. 여기는 땅이 세로와 가로로 잘 나누어져 있으며, 세로에 따라 street 이름이 달라지고 가로에 따라 숫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버스들이 모두 직선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다운타운 쪽이 아닌 이상 그 거리를 달리는 버스의 종류는 1개입니다.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에 전광판이 없습

	니다. 따라서 다음 버스가 몇 분 남았는지는 구글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에는 Bus, Sky train, Sea bus가 있으며 주로 Bus와 Sky train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 다 학교에서 주는 compass카드를 이용하면 되고 1존에서는 free이며 2, 3존으로 가게 가는 경우는 그 존 가격에 해당하는 요금에서 1존 가격을 제외한 요금을 카드에 넣어야 합니다. 버스는 탈 때만 카드를 찍고 내릴 때는 카드를 찍지 않으며, 내릴 때 문을 눌러야 열립니다. sky train 경우는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도 찍어야 합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유심	60,000	
교통비	40,000	
현지 사용료(밥값+입장료+쇼핑)	1,500,000	
합계	1,6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유심칩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더 싸기때문에 한국에서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가기 전에 홈스테이 주인에게 메일을 보내서 그 곳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챙겨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홈스테이에서 수건을 제공해주지만 여분의 수건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큰 타월하나 주고 일주일동안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놀러갈 때 구글맵이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깔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모든 것이 Tax가 붙은 가격 이 아님으로 실제로 본 가격과 지불해야하는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기본 Tax가 5%고 물건거래세로 붙는 GTS가 7%라서 총 12%정도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master나 visa로 1.2%의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싫으시면 현금을 많이 환전해 가거나, 수수료가 없는 해외전용 카드를 하나 발급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에는 걱정이 앞서서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같이 듣는 다른 나라의 친구들도 모두 영어를 배우려고 온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로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영어회화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캐나다의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영어는 해야만 하는 공부였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영어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더 배우고 싶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본어와 중국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일본어도 공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걱정이 많은 성격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할지말지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